

본문:창3:9-21

제목:네가 어디 있느냐

- 9: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 12: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3: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14: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찌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 15: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16: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 17: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찌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18: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19: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20: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21: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 기네스북에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의, “에로 스미스” 부부(105세, 100세, 결혼 기간 80년)의 행복한 금실의 비결은, ‘미안해’ 라는 말을 서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끼리, 친구끼리 사장이, 사원들에게 사원이 사장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할 때,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큰 “회복” 과 “치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말이, ‘미안해’ 라는 말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바빴어’ 라는 말 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그뻘 “미성숙했다고” 유치했다고 하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였어라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미안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자신이 숨을 만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뜻이” ,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 심성의 일그러진, 모습일 뿐입니다.
범직하고 넘어진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오늘 우리의 “자아상” 입니다.

하나님께 나감으로,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3:9-13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하여 숨었나이다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사 그가 그 나
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여호와 하나님이 여사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사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선
여러분을 반드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전 인류를 거쳐 각 개인에게,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 **이 음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문” 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 상태인지
아니면 말씀에서, 이탈한 상태인지를 물으시는, 심문입니다.

😊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영적 상태에” 관하였고
아담의 대답은, “육적 상태에” 관하였습니다.

저들은,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제면적인 말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숨기려했습니다.

이런, 구실과, 변명과, 속임수는 사람에게는, 통하나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창3:10-13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죄에 대한, 고민과 행위에 대한, 수치감도 없고

다만 그 죄를 가리우려는, 욕망만 드러낸 냉담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 죄가 명백히 지적되자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어느 무명작가의 오래전 글입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위선과, 죄악의, 가면을 벗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창3:15

15: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
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입니다.

심문은, 남자에게서 시작했으나
판결은, 뱀에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결의 내용은 뱀에게는, 저주이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산고와 남편에게, 복종과
남자에게는, 생계의 고통이었고 그리고 남,여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중국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예언됩니다.

뱀에게, 심문은 없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뱀과, 마귀와, 사탄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나 뱀은 특이, 저주를 받았습니
다. 배로, 다니고 육을 먹는, 저주였습니다.
육은 저주와 굴욕의, 상징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뱀과 인간의, 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뱀” 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며, 그 머리를 쳐 죽이려 하고
뱀은 사람을 만나면, 그 발 또는, 몸을 뭍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원시적 복음)이라 부릅
니다.

메시아와, 사탄 간의, 투쟁사이고
구체적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사탄은,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갈3:16,19

16: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9: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고 실패 같은, 승리와 성공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친구도, 없고, 남의 집에도, 가지 못하고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심하게 살면서 평생을, 나약하게 보낼 수는 없다 고 생각하고 한 번 뿐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미치자 과감하게, 자신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머금고 인사부터 하고는

상대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멋있는 분이군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말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했고, 좋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국의, 달변가이며 시인이며,

극작가인 “버나드 쇼” 입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최초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표현하고, 전파하여
모두를, 구원하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평생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3.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3:20-21

20: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짜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범직한 아담부부에게, 은혜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에서의 형벌이 아니라 공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와는,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하와는 좁게는, 전 인류의 어머니이고 넓게는, 전 생물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햇빛에 곧 말라, 부서져서 몸을 가리우지, 못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옷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나체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인위적 방법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대속으로만 죄의 수치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만든 것으로

세상 죄를, 지고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1:29

29: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를 예언하고

인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웁니다.

☺☺인생을 3종류로 상징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실패와, 배신과, 작절과, 병고와, 고난과, 절망의 비입니다.

실로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이상한 것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비를 맞을 때, 비로소 연약한 나를 알고

이웃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우린 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햇빛이” 비치는 날이 있습니다.

떨물이 있으면, 곧 밀물 때가 옵니다.

동트는, 새벽과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받은바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신나게,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물을 잡아당기는” 날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물을 던진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에 지나치게, 구별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다 드러냅니다.

그렇듯하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사람에게

가죽옷을 찢어 입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성도답게 살고

창12:2

12: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그 모습이 어떻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을 하던,
넘어진 인생을 살던, 성공한 삶을 살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있느냐?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범죵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가시와 영경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